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6년 1월 9일 금요일 (음 11월 21일) 제389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새해 전주, 시민과 함께 대도약

### 우범기 시장, 2026년 시정운영 방향 발표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미래 성장 동력 확충
- 시민 중심 시정 구현 등
- 3개 분야 9개 전략 제시
- "올해, 변화의 초석 위에  
가시적 성과 만들어 낼 것"



우범기 전주시장이 8일 전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전주시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세계를 선도하는 AI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등 지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K-컬처의 수도로서 대한민국 문화자산의 가치를 확산하는 등 세계 속의 전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다. (관련기사 5면)

특히, 시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다양한 기반을 다져 미래세대가 희망을 품고 정착할 수 있는 100만 광역도시로의 대도약을 이어가는 한편, 전주를 시민에게 힘이 되는 시민을 위한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8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2026년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를 향해, 미래를 위해, 시민과 함께 대도약의 길을 굳건히 나아갈 것입니다"를 비전으로 한 3개 분야 9개 전략을 제시했다.

도전과 혁신의 힘으로 전주의 대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3대 분야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세계로) △미래 성장 동력 확충(미래로) △시민 중심 시정 구현(시민 속으로)이다.

먼저 시는 탄소·바이오 등 특화산업과 AI 융합 실증환경 조성 등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미래 AI 산업 생태계를 새롭게 개척해 나가면서 지역 산업의 체질 혁신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AI 거점도시로 도약하기로 했다.

동시에 시는 세계가 찾아오는 도시

를 만들기 위해 주민의 목본적인 콘텐츠를 창조하고, 관광자원 발굴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공을 들이는 등 2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전주올림픽 유치라는 역사적인 도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유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미래 100만 광역도시 도약을 위한 종합경기장 MICE 복합단지 조성을 본격화하고,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망 확충에 공을 들이는 등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성장동력을 채워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는 청년들의 정착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비롯한 단단한 일상과 건강한 마음까지 품으며 챙기고 특히 청년민원주택 '청춘★별채'를 추가 공급하는 등 미

래세대인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든든히 갖춰나갈 예정이다. 또,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 모든 출생아에게 10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급하는 등 결혼과 출산 양육에 부담이 없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선도 정책들도 꾸준히 이어가기로 했다.

끝으로 시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구현해 시민과 함께 대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민간 투자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효율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 및 민간 분야의 생산·고용을 창출해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 수 있도록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시는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와 희망드림 특례보증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 농업 성장과 농업경영 안정을 지원해 농촌에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기로 했다.

모든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시민과 함께하는 포용적 돌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시간, 우리가 정해진 도심의 흐름을 바꾸고 '할 수 있고, 해내야 한다'는 희망의 꿈을 심으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로 대담하게 나아가갈 수 있었던 것은 역사적 자부심과 당당함을 지닌 현명한 전주 시민의 힘이 저력 덕분"이라며

"재 희망의 2026년 전주시는 위대한 전주시민과 함께 그동안 다져온 변화의 초석 위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며, 시민의 삶이 바뀌고 도시의 운명이 바뀌는 전주 대도약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 신영대 의원직 상실... 6·3 지선서 재선거

### 전직 선거사무장 실형 확정 따라... 군산지역 선거판 요동칠 듯

군산·김제·부안갑을 지역구로 둔 신영대 국회의원에 대한 당선 무효 처러 됐다. 이에 따라 오는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거가 치러진다.

총선 출마를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해당 선거 후보자의 당선 또한 무효 처리한다.

8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판결로 오는 지선에서 군산지역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

게 된다. 재선거 담당사무는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다.

이에 따라 군산시 유권자들은 오는 지선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전북도의원, 군산시장, 군산시의원 등 6종의 투표용지가 배부된다.

이반 신 의원의 당선무효 선고로 군산에서는 국회의원 출마를 놓고 선거판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전직 선거사무장 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확정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 중기 금융지원 정책 도 민선8기 성과 입증

### 중기 육성자금 1조1000억원 규모 투입 고금리 대응 위한 이차보전 강화 등 성과

전북자치도가 고금리 속 중소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하며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정책으로 민선8기

의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8월 도에 따르면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3,3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도내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강화와 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이 자금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434개 업체에 총 8,327억원이 투입됐다.

올해 예산까지 합산하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정책 지원 규모가 1조1,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집행액 7,895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기존 5%에서 4.3%로 낮추면서 이차보전은 그대로 유지했

다. 이에 따라 기업의 실질 부담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기준 2.82%에서 2.17%로,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1.82%에서 1.17% 수준으로 각각 인하됐다. 장기화되는 고금리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한 셈이다.

아울러 현대자동차 상용차 생산 기지로 전주공장이 확정되면서 대규모 설비투자 및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협력업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 전략산업 특별자금'을 한시 운영한다. 신청 기한은 올해 6월 말까지다.

한편,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https://jtk.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만호 기자

제12회 무주 반딧불배 스키·스노보드 대회' 일정에 따라 12일자까지 신문 쉽다.

2026~2027  
**진안방문의 해**  
방문의 해

진안고원  
JINAN GOWON

#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

## 진안군이 도약하는 한 해!

2026-2027 **진안방문의 해**  
2026 **전북특별자치도민체전개최**

진안군 공식캐릭터로 붉은 말이지 배랑